

대한 분쟁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을 두고 논쟁과 혼란이 가중되어 교육부의 관선이사가 파송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최근 협성동문들이 입법총대님들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과반수 이사파송의 명분으로 10년치 기부금을 그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명분이 될 수 있는지요? 10년 동안 감리회에서 협성대학에 준 62억은 교단에서 준 기부금이 아닌 상동교회 성도를 포함한 모든 감리교회성도들이 3개 모든 신학대학에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협성대학은 62억 모두를 3%에 해당하는 신학생들의 장학금과 교육지원금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퇴목회자들의 생명줄인 은급비를 줄여야 하는 절박한 교단의 재정 상황에서 교단이 삼일학원에 재정을 충분히 지원할 여력은 없을 것입니다. 협성의 모든 동문과 교회들이 10년 동안 기부한 소중한 26억원은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발전을 위한 순수한 헌신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상동교회와 성도들은 상동타운의 심한 적자로 인한 재정적 압박 가운데에서도 9억 2천여만원을 삼일학원과 협성대학에 지원하였습니다. 미약한 헌신이지만, 역사적 사명을 이어 가고자 하는 진심 어린 몸부림이었습니다. 3,600명의 협성의 동문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흘린 상동의 땀 어린 헌신의 결과입니다. 굳이 값으로 치면 460억원이 넘는 재정적 헌신과 운영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상동의 기도와 고뇌를 10년 기부금이라는 단순 명목을 앞세워 부인하고, 상동교회를 “그들”이라고 적대시하는 것은 어머니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4) 감리교회의 미래와 존립은 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리교통합대학원에 성공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삼일학원의 이사를 과반에 한 명 적은 7명을 파송한다는 입법은 학부 중심의 목회자 양성과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비추어져 감리교통합대학원의 입법 취지와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통합대학원에 대한 장정개정위원회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 명분이나 근거 없이 사랑하는 감리교단이 교권을 앞세워 개교회의 고유유산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상동교회와 삼일학원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및 독립적/공공적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체교회는 그 부당성을 호소하고 수정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가 자문한 모든 법무법인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총대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체교회의 재산권과 고유선교활동을 교단이 침해하고 종속시키는 길을 입법의회가 열어준 것으로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개체 교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3. 상동교회는 감리교 구성원들의 사랑의 채찍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교회와 학교법인을 보다 엄격히 구분하여 학원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확립하겠습니다.

- 1) 학원의 모든 인사가 투명한 절차 아래 개방적이고 합리적이 되어 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고 가장 경쟁력 있고 적합한 인사가 선임되도록 하겠습니다.
- 2)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협성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원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3) 법인의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10. 18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성도 일동